

지평선 150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그 가능성과 미래

자유시장의 경쟁을 향한 새로운 국가의 위약

## 최인기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 문화전담운영·도시운영팀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닳을 올린 지도 4년째로 접어들었다. 문화가 국가 전략의 중심에 등장하면서, '교류를 통한 아시아 문화허브 달성'을 내걸고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법적 기반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런데 큰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세부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낯선 명칭만큼이나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광주'에서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에는 잘 알지 못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란 대체 어떤 도시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왜 문화이며, 어째서 광주인가

올해로 3년이라는 시간을 마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 명칭이 주는 생경함과 복잡함만큼이나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문화중심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담아내려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이다. 사업규모와 추진방법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은 한국이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통과 의례지만, 여전히 그 전제가 우리 사회에 버겁다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모순을 발전의 근본원리로 삼는 변증법의 '제3의 합'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문화중심도시란 명칭에서 '중심도시'란 말이 함의하는 것은, 문화패권적인 중심이 아니라 차별화(부산의 영상문화중심도시, 경주의 역사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된 중심과 허브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미리 밝혀둔다.

문화중심도시는 21세기 국가발전의 토대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인 '문화'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려는 국책사업의 광주 발 버전이다. 건국 이후 최초로 '건설과 개발' 위주의 도

빛의 숲, 기억, 시민 공원 등을 컨셉트로 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현상설계안.



시계획이 아닌 ‘문화’를 통해 도시발전을 꾀하려는 국가의 구상과 시도는, 문화 관련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갑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해오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하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다른 도시가 아닌 광주에서 시작되는가’였다. 문화를 꽃피우는 대부분의 도시는 경제적인 부가 뒷받침되거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교류의 중심지일 터인데, 광주는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도시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광주는 일제가 효율적인 착취를 위해 발전시켰던 도시다보니, 특색이 없고 자기 배경을 가지지는 못했다. 오히려 광주를 대표하는 것은 역사성이고, 이는 후에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왔다. 그렇다면 가장 문화적이지 않은 도시를, 자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갈 수 없는 도시를 국가가 그 간의 소외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광주가 가진 무엇이 문화중심도시를 이끌어갈 배양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우리에게 문화도시를 이루는 요소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준다.

분명한 것은 문화는 창의성과 다양성에서 비롯되며, 그 창의성과 다양성은 바로 ‘자유로움’에서 잉태된다는 사실이다. 70년대와 80



년대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현재 우리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자유’의 영역이 확장되어왔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일상의 영역,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거나 심화되지는 못했다. 성숙한 사회의 척도는 민주화의 과정을 내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다. 민주화를 내면화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의 긍정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자기 긍정성은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존중을 이끈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 개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문화국가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아 문화의 중심, 그 교류와 정체성 찾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중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 문화가 무엇이며 광주와 아시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는 매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에서부터, ‘21세기 첨단테크놀로지 시대에 아시아 문화와 예술이 돈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그 비판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아시아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아시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바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러한 정체성 찾기는 아시아의 정체성이 ‘있다’는 환상을 줌으로써 결국 아시아를 어떤 특정 부분으로 고착시켜버릴 위험이 있다.

또한 우리가 아시아 문화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자본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도 곤란하다. 이는 아시아를 대상화하고 박제화해 우리를 삶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유리시켜 버린다.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오히려 수백 년 동안 단절되었던 익명의 수십억 아시아인이 빚어내며 축적해온 고유한 삶의 경험을 교류하는 것에서 비롯해야 한다.

이러한 삶의 교류와 소통은 아시아인들에게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및 미래를 향해 열린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아시아 문화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야기되어야 생산력이 생길 수 있고, 국가는 물론 아시아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시아는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연대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구체적인 연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아시아는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부재했다. 즉 아시아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시선을 내재함으로써 자신을 서구의 언어로 해석해온 것이다. 또한 한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피식민지 경험을 거쳐오면서 서구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파행적인 근대화 과정을 겪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시아인들은 자기 정체성과 세계관의 혼란, 자연과 삶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교하면서도 독특하게 발달시켜온 미학과 지식, 사고체계 등 아시아 문화의 가치가 빛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서구가 세워놓았던 근대의 합리성과 이성이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면서 세계의 관심은 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다기한 인종적 상상력이 빚어내는 질 높은 생산성, 우수한 생태환경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세계의 미래를 향해 열린 출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근대로부터 소외되고 중심으로부터 비켜선 주변성이 세계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빛, 이 빛은 균형이자 연대의 에너지이며, 새로운 문명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지시할 것이다.

#### 아시아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인본도시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회가 바로 문화와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너무도 다행스러운 동시에 흥분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문화는 긍정을 통한 창조의 추동력이며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통해 권력이나 정치의 제도화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는 서구의 근대 기획에서 소외됨으로써 수많은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을 전통 속에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채 축적시켜왔는데 그러한 아시아 문화자원이 디지털 미디어가 강조되는 첨단테크놀로지 시대인 현재, 창작물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 예술의 경우는 19세기를 지나면서 대상을 여러 형식과 장르로 분화시키면서 각각의 언어를 발전시키고 장르의 언어와 추상표현까지도 해왔다. 하지만 분절과 분류가 오히려 수많은 문제를 낳는 한계에 직면했고,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자본가의 향유물로 발전된 예술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르간의 융합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의 발달이 대표적인데, 현재는 이전의 일반적인 창작 방법, 과정, 생산, 유통은 물론 이를 향유하고 수용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질



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21세기다. 세계적인 기관인 MIT 미디어랩만 보더라도, 핵심적인 연구활동은 단일 영역의 기술개발이 아니라 각각 분리되어 있는 여러 영역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분류화, 체계화하지 않아 생산력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아시아의 사유체계나 통융합적인 표현방식은, 디지털과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모든 대상을 작게 쪼개는 분절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아시아인들은 대상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는 총체적인 사고를 근간으로 한다. 예를 들면 회화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화의 원리와 달리, 동양화의 기본 원리는 ‘시(詩), 서(書), 화(畫),

인(人)’의 유기적인 결합에 있다. 네 가지의 요소가 서로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고 통합되면서, 처음에는 내포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의미와 효용, 감각과 감성이 창조된다. 그리고 이러한 아시아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유체계가 테크놀로지와 조우함으로써, 사유체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유로운 발상과 창의력이 생산력을 높인다. 이제 우리는 형식이 내용을 구속하던 시대를 벗어나, 내용에 따라 형식이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 21세기 콘텐츠 시대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진단과 가능성에서 구상되었다.

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의 가치를 내재한 ‘신인본도시’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는 도시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 문화중심도시가 목표하는 것은 모두 세 가지다. 미래의 평화 아시아를 위한 교류와 문화창조·연구·교육의 장으로서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의 역할을 하는 도시, 문화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는 미래형 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전통적 가치들을 새로운 문화적 표현으로 이끌어내는 ‘아시아의 평화놀이터’가 되는 도시다.

#### 문화에너지를 도시에 순환시키는 ‘발전소’

광주의 중심에 자리할 문화전당은 도시의 문화재생을 상징하는 동시에, 도시의 미래를 상징하는 하나의 존재가 될 것이다. 최근까지 설계와 관련해 논란도 많았다. 우선 ‘전당’이라는 명칭은 일정 공간을 점유하는 건축물이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여기서 전당이란 형식을 이끌어가는 과학기술과 내용을 만들어가는 예술의 영역이 서로 융합되고 동시에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예술과 문화, 예술·문화와 기술, 창작자와 향유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확장되어 높은 생산력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구상한 전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활동할 사람이다. 때문에 전당을 처음 구상할 때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이 거대

한 건물을 굳이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 막대한 건립 비용으로, 도시의 수많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들어갈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젝트 수행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가 재정운영의 관례상 이런 바람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때문에 고민은 ‘어떻게 해야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인 문화전당이 도시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도시에 문화적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는 데로 집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전당에서 생산되는 문화에너지가 도시로 확산될 수 있는 순환구조인 ‘문화전당-도시 문화거점(미니전당)-문화터-문화방’이라는 도시순환네트워크를 구상했다.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기획된 문화와 각 지역의 자생적 문화들이 이 순환구조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상승하여 도시 전체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게 된다. 문화중심도시라는 것은 바로 문화소비 주체들의 변화를 반영하는 문화생산물, 그리고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화생산물을 깊이 이해하고 비판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자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깨달음이다. 인문·사회적 교양이 풍부하고 창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수준 높은 문화생산물을 제대로 즐기고 깊이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소양을 배울 기회와 토양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서구사회는 다양한 장르와 부문마다 마니아가 존재하여 수준 높은 문화생산물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나가고 있다.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마니아는 비록 그 수가 소수일지라도 고급의 문화생산물이 확대·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배경이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그려놓은 문화전당과 도시의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은 바로 이를 우리사회에 구현해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고 다시 문화의 자생으로 이어지는 ‘문화중심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인지 궁금할 것이다. 현재 2023년까지 잡고 있는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으로 대표되는 도시문화거점 조성과 도시네트워

크 구축이다. 두번째는 도시를 채우는 콘텐츠 생산기반의 마련이다. 문화적인, 창의적인 미래의 인력을 위한 인력양성기관을 설립하고, 아시아의 문화콘텐츠와 음악콘텐츠 등 관련 콘텐츠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두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도시의 문화적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 기반 마련을 위한 가상도시 구축과 문화도시 광주를 측면에서 지원할 배후도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산업적 기반이 전무하다시피한 광주에서 기초적인 문화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해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한 국가단위의 공공적 필요성과 결합한 시범적인 콘텐츠 인프라 구축 제작을 통한 창조산업정책이다.

문화전당의 건립과 도시문화거점의 조성은, 도시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것으로 문화전당-도시문화거점-문화터-문화방으로 촘촘히 얽힌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지구인 문화전당은 창작, 연구, 교류가 이뤄지는 공간이며 이 활동과 결과물은 다시 도시문화거점과 기초문화공간인 문화터와 문화방으로 분산 및 방사된다.

도시문화거점은 저마다 다른 기능을 하며 중심과 주변을 잇는 노드인 동시에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클러스터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도시문화거점으로 아시아문화지구의 ‘문화생산자들을 위한 레지던스’와 ‘아시아문화원 거리’, 시각미디어지구의 ‘인터랙티브미디어파크’와 ‘아시아색채문화센터’ 그리고 인권·교육문화지구의 ‘아시아평화의전당’과 ‘NGO와 학술인들의 레지던스’, ‘교육문화시범단지’ 아시아신과학연구지구의 ‘아시아전승지식연구소’와 ‘아시아전승의학연구소’ 전승놀이의 교류가 이뤄질 아시아전승문화지구의 ‘아시아전승놀이테마파크’ 등이 있으며 도시의 배경이 될 생태와 환경 등의 기능을 담은 ‘문화경관·생태환경보전지구’의 문화거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 로드맵과 특별법, 그리고 지금

이렇듯 도시 하나를 바꾸는 것 이상의 조성사업을 위해 걸어온 길은 이제 네 해째로 접어들었다. 불안과 비판도 만만치 않지만 도시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잉태되고, 성장하는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어나지 않은 세살박이의 걸음마일 수도 있다. 그동안의 과정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숨이 가쁠 정도다.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 및 조성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2004년이었고, 이듬해 12월에 전당 건립 착공 및 대통령의 예비종합계획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당운영조직화사업 및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 시행령 발효 및 직제 개편 등 굵직한 성과들을 축적해옴으로써, 이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사업기간 2023년까지, 특별법 유효기간 2026년까지).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을 위한 환경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충분조건 아니 필요조건은 될 수 없다. 문화중심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안정성, 행정적 절차와 더불어 사업이 출발할 때 가졌던 창의적인 전문성의 지속적인 확보와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추진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획단은 출범 이후 줄곧 일반 공무원과 민간영역 전문가가 결합돼 운영되어 왔다. 또한 문화전당 운영조직화사업을 위한 PM제 도입의 시도 및 국내외 유사기관의 성공사례를 통해 향후 전당을 이끌어가는 조직체계를 수립하는 등 민간영역으로부터 전문성을 사업의 주체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기획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 사회에 전문가는 많지만 창의적인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문화전당 내 전문교육기관은 생산·기획·제작·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창의적인 문화기획자, 경영자를 양성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하여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을 교류 중심으로 삼아 아시아 문화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전당 내의 전문교육기관이 전문가 영역에서의 창의적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시민 단위에서는 문화컨듀서(conducer) 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시민 주체화는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가능할 수 있다. 멀게는 임진왜란 때의 항일의 병운동에서부터 가깝게는 80년 5·18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시민주체화의 경험과 역사야말로 문화도시의 진정한 배양토이며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시민의 주체적 역량을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컨듀서와 같은 시민단위에서의 전문적인 기획과 조직력을 가진 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러한 인력들을 토대로 시민주체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고급 문화향유의 기회를 일상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광주 시민 및 문화예술인,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활동가나 예술인들이 주체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인력과 프로그램의 순환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문화해득력 및 미래의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예술 생산자-동료-향유자의 선순환 구조, 그리고 이를 통한 창작자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해득력 및 창작력의 촉발 및 견인 시스템 구축의 성공여부가 바로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들어가는 척도가 될 것이다.

글쓴이 **최인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의 초기 연구·기획 단계부터 프로젝트를 구상·기획·조직했고, 현재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전당·도시운영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 이전에는 무대미술과 소품 디자인, 공연기획, 음반기획 등의 경력을 포함해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을 벌여왔으며, 장편영화 제작·투자 및 독립영화, 실험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를 기획·제작했다. 관련 장편영화로는 〈박하사탕〉(이창동, 1999), 〈오! 수정〉(홍상수, 2000), 〈시월애〉(이현승, 2001) 등이 있다.